



Ⅲ. 항공산업·레저 동향

- 1. 항공관련 경제지표 동향 / 79
- 2. 항공산업관련 주요 동향 / 87
- 3. 항공기 제작 및 정비 동향 / 89
- 4. 우리나라 항공레저 동향 / 91
- 5. 기타 / 93





Ⅲ 항공산업·레저 동향

1. 항공관련 경제지표 동향

1.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동향¹⁾

-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내수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임
 - 서비스업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매판매와 투자 부진이 완화되며 내수 경기가 일부 개선
 - 대면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지속
 - 자동차 부품의 수급 차질이 완화되며 자동차 생산과 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구재 소비가 일부 반등
 - 아울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부진한 흐름이 다소 완화
-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경기 회복세가 제약됨
 - 반도체는 수요 둔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도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중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됨
-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점차 부진해지는 모습
 - 9월 수출은 전월(6.6%)보다 낮은 2.8%의 증가율을 기록
 - 수입은 주요 에너지원(75.9%→ 61.8%)과 이를 제외한 부문(14.0%→ 5.2%) 모두 증가폭이 축소되며 전월(28.2%)보다 낮은 18.6%의 증가율을 기록
 - 8월 교역조건(-11.2%→-10.3%)은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9월 무역수지는 전월(-94.9억달러)보다 축소된 37.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 주요국에서 고물가에 대응한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더욱 확대
 - 세계경제는 OECD 선행지수와 주요국의 기업 심리지표가 하락하고 있어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
 - 생산과 물류 차질이 부분적으로 해소되는 등 공급망 교란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나, 주요국에서

1) 자료: KDI 경제동향(2022.10)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위험요인도 다수 상존

- 미국은 민간소비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 불안에 대응한 급격한 통화긴축으로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되는 추세
 - 유로존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
 - 일본은 대다수의 실물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전망
 - 중국은 내수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수출과 부동산 투자가 위축되고 극단적인 방역정책(제로 코로나 정책)도 유지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
- 세계경제는 2022년과 2023년에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불확실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

〈표 III-1〉 주요 경제지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2020	2021	2021	2022					
			Ⅳ	Ⅰ	Ⅱ	Ⅲ	7	8	9
전산업생산 All Industry Production	-1.1	4.9	5.7	4.0	4.5	-	3.8	4.5	-
광공업생산 Industrial Production	-0.3	7.4	6.4	4.7	4.1	-	1.5	1.0	-
서비스업생산 Service Production	-2.0	4.4	5.5	4.1	5.5	-	4.6	7.1	-
소매판매액 Retail Sales Index	-0.2	5.9	6.4	2.8	-0.2	-	-1.9	2.3	-
설비투자지수 Index of Equipment Investment	5.9	9.6	6.2	-1.3	-2.4	-	-2.2	11.8	-
건설기성액(불변) Value of Construction Completed(Constant Price)	-2.1	-6.7	-2.9	-1.5	2.1	-	1.7	7.5	-
수출(통관) Export(f.o.b.)	-5.5	25.7	24.5	18.4	13.0	6.0	8.7	6.6	2.8
수입(통관) Imports(c.i.f.)	-7.1	31.5	39.4	29.8	23.1	22.8	21.7	28.2	18.6
무역수지(십억달러) Balance of Trade (Billion US Dollars)	44.9	29.3	4.4	-4.0	-6.6	-18.3	-5.1	-9.5	-3.8
실업률 Unemployment Rate	4.0	3.7	3.4	3.0	2.8	-	2.9	2.5	-



구 분	2020	2021	2021	2022					
			Ⅳ	Ⅰ	Ⅱ	Ⅲ	7	8	9
취업자수 Number of Employed	-0.8	1.4	2.4	3.8	3.2	-	3.0	2.9	-
소비자물가 Consumer Price	0.5	2.5	3.5	3.8	5.4	5.9	6.3	5.7	5.6
국고채 3-year Treasury Bonds	0.98	1.8	1.8	2.66	3.55	4.19	3.01	3.69	4.19
종합주가지수 KOSPI	2,873	2,978	2,978	2,758	2,333	2,155	2,452	2,472	2,155
원/달러 환율 Won/Dollar Exchange Rate	1,086.3	1,188.8	1,188.8	1,212.1	1,298.4	1,430.2	1,299.1	1,337.6	1,430.2
OECD 경기선행지수 OECD Composite Leading Indicator	-2.1	3.4	1.8	0.2	-1.5	-	-2.1	-2.3	-
유가(두바이, 달러/배럴) Oil Price(Dubai, US\$/bbl)	42.3	69.4	78.3	96.2	108.3	96.7	103.1	96.6	91.0

주: 국고채 수익률·종합주가지수·원/달러 환율은 기말 기준, 유가(두바이)는 기간평균 기준임

나. 경제전망

- 한국은행이 '22.8.25일 발표한 「경제전망(2022.8월)」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2.6%, 2.1%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국내경제는 2/4분기중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과 일상회복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
 - 건설투자는 건설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상품수출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증가세가 보다 약화될 전망
- 취업자수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74만명, 14만명 증가할 전망
 - 향후 취업자수는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5.2%, 3.7%를 나타낼 전망
 -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압력 지속,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 전망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증과 내년중 각각 370억달러, 340억달러 수준을 나타낼 전망
- 무역수지 적자흐름이 이어지면서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

〈표 III-2〉 한국은행 경제성장 전망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2021	2022 ^{e)}			2023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GDP	4.1	2.9	2.4	2.6	1.7	2.4	2.1
민간소비	3.7	4.2	3.8	4.0	3.1	2.1	2.6
설비투자	9.0	-7.1	-0.2	-3.8	3.1	-1.4	0.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5	3.6	4.0	3.2	3.7	3.5
건설투자	-1.6	-4.3	1.0	-1.5	3.3	1.3	2.2
상품수출	10.5	5.9	0.8	3.2	-1.5	4.6	1.6
상품수입	12.8	5.2	0.6	2.9	0.9	3.2	2.1

주: '22년 및 '23년도는 예상치, Expectation

-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
 - 2/4분기중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가 부진
 - 향후 주요국 금리인상, 유럽 가스공급 축소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상품교역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증가세가 약화되는 반면 서비스교역은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
 - 미국은 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 유로지역은 에너지 수급 차질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될 전망
 - 일본은 2/4분기중 소비 및 설비투자 개선 등으로 0.5%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전망
 - 중국은 당국은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표 Ⅲ-3〉 우리나라 2021~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요약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발표시점
OECD	4.1%	2.8%	2.2%	2022/09/26
IMF	4.1%	2.6%	2.0%	2022/10/11
한국은행	4.1%	2.6%	2.1%	2022/05/26
아시아개발은행(ADB)	4.0%	2.6%	2.3%	2022/09/21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4.0%	3.0%	2.6%	2022/04/12
LG경영연구원	3.9%	2.8%	-	2021/12/13
현대경제연구원	4.1%	2.5%	2.2%	2022/09/23
KDI	4.0%	2.8%	2.3%	2022/11/10

주: 각 기관별 발표 자료

1.2 환율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변동성이 확대
 - 7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50bp)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상승세를 보임
 - 8월중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25bp)에도 불구하고 미국 긴축정책 지속 의지 재확인, 중국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유로지역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
 - 9월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강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우리나라 8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큰 폭 상승
 - 3/4분기 원/엔 환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고, 원/위안 환율은 7월 하락세를 보이다 8월들어 상승세로 전환, 9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표 III-4〉 원/달러, 원/엔 및 원/위안 환율 추이

(기말 기준, 단위: 원, 달러, 엔, 위안, %)

구분	2020	2021	2022					
		4/4	1/4	2/4	3/4	7월	8월	9월
원/달러	1086.30 (-6.1%)	1188.80 (0.4%)	1212.10 (2.0%)	1298.40 (7.1%)	1430.20 (10.2%)	1299.10 (0.1%)	1337.60 (3.0%)	1430.20 (6.9%)
(평균)	1180.01 (1.2%)	1183.06 (2.1%)	1205.29 (1.9%)	1261.12 (4.6%)	1340.23 (6.3%)	1307.45 (2.1%)	1320.35 (1.0%)	1396.50 (5.8%)
원/100엔 ¹⁾	1051.14 (-0.8%)	1032.39 (-2.4%)	995.20 (-3.6%)	952.99 (-4.2%)	990.07 (3.9%)	980.05 (2.8%)	965.74 (-1.5%)	990.07 (2.5%)
(평균)	1105.29 (3.3%)	1040.23 (-1.1%)	1035.81 (-0.4%)	972.47 (-6.1%)	969.57 (-0.3%)	956.50 (0.3%)	976.12 (2.1%)	976.07 (-0.0%)
원/위안	167.02 (0.9%)	186.63 (2.0%)	190.68 (2.2%)	193.85 (1.7%)	201.83 (4.1%)	192.52 (-0.7%)	193.72 (0.6%)	201.83 (4.2%)
(평균)	170.89 (1.3%)	185.09 (3.4%)	189.71 (2.5%)	190.50 (0.4%)	195.42 (2.6%)	194.08 (1.5%)	193.83 (-0.1%)	198.59 (2.5%)

주: 1) KEB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 고시가)

2) ()내는 미달러화, 엔화(100엔) 및 위안화 대비 원화가지 변화율(+강세·(-)약세, 전기(말) 대비

자료: 한국은행

1.3 항공유가

- 제트항공유의 '22년 3/4분기 Platts 지수²⁾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가 이어졌고, '22.9.16일 332.52로 3분기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세가 나타남
- 제트항공유 월별 Platts 지수: 436.17(7.1) → 378.31(7.22) → 350.47(8.5) → 424.12(8.26) → 332.52(9.16) → 355.48(9.30) → 425.83(10.7)
- 제트항공유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 39%, 유럽 & CIS 28%, 아시아 & 오세아니아 2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제트항공유 Platts 지수는 북미 지역이 390.63으로 가장 높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325.19로 가장 낮음

2) Platts는 2000년대의 유가를 100으로 환산하여 유가지수를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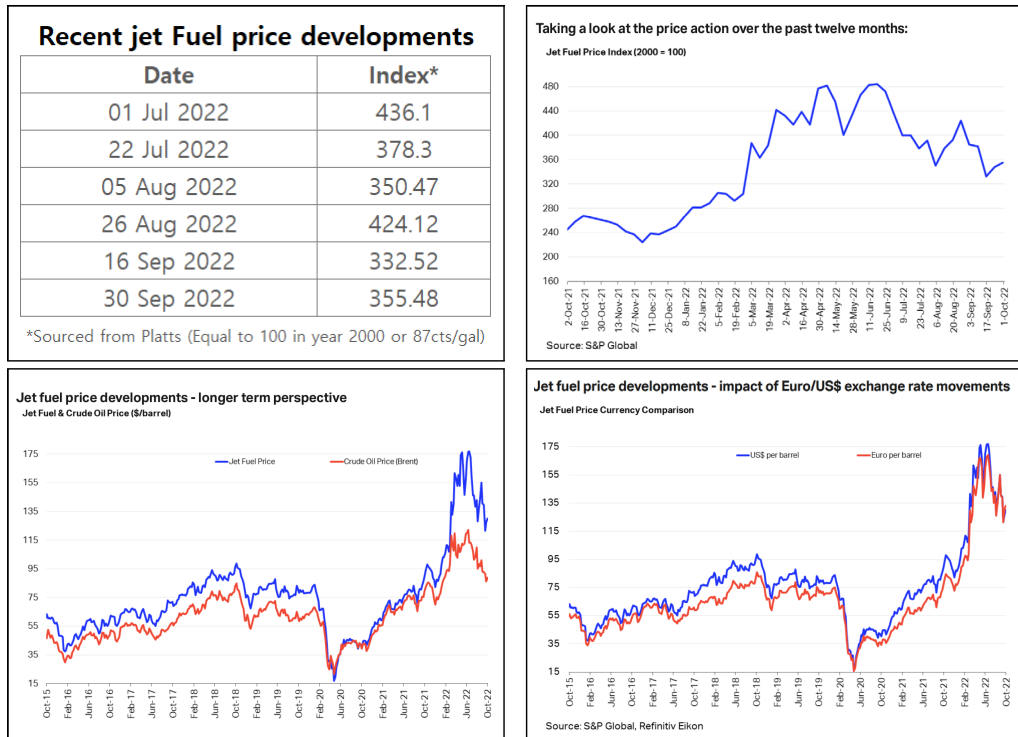
〈표 Ⅲ-5〉 지역별 제트항공유 Platts 지수 및 가격

(2022.9.30일 기준)

구 분	Index 비중(%)	cts/gal	\$/bbl	\$/mt	Index Value 2000=100	전주 대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Jet Fuel Price	100%	309.62	130.04	1026.94	355.48	2.1%	-7.5%	45.6%
아시아 & 오세아니아	22%	270.98	113.81	899.12	325.19	-0.8%	-15.0%	32.0%
유럽 & CIS	28%	291.7	122.51	966.63	330.09	-3.3%	-15.3%	38.2%
중동 & 아프리카	7%	273.36	114.81	906.52	342.86	-0.7%	-15.2%	33.6%
북 미	39%	349.85	146.94	1160.79	390.63	7.5%	3.4%	60.0%
남미 & 중미	4%	323.02	135.67	1071.78	375.82	2.5%	-5.8%	45.8%

자료: IATA

- 원유가가 내리면 제트유가도 내리는 동조화(coupling)현상을 그래프로 확인가능하며, 원유가와 제트유가 간 차이(spread)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
- '22.9.30일 기준 제트유는 배럴당 130.04달러로 전주 대비 2.1%, 전월 대비 -7.5%, 전년 대비 45.6% 증가



〔그림 Ⅲ-1〕 제트항공유 Platts 지수 및 가격변동

1.4 유류할증료 현황 분석

가. '22.11월 유류할증료 현황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들어 7월 22단계로 상승한 이후, 9월에는 6단계 하락한 16단계, 10월에 1단계 상승한 17단계를 기록,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 하락한 14단계로 적용
 - 유류할증료 단계: 0단계('20.4~'21.3) → 2단계('21.4) → 1단계('21.5) → 2단계('21.6) → 3단계('21.7) → 4단계('21.8) → 4단계('21.9) → 3단계('21.10) → 6단계('21.11) → 8단계('21.12~'22.1) → 6단계('22.2) → 10단계('22.3) → 14단계('22.4) → 17단계('22.5) → 19단계('22.6) → 22단계('22.7~8) → 16단계('22.9) → 17단계('22.10) → 14단계('22.11)
-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22년 9월 16일~'22년 10월 15일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 가격이 갤런당 280.28센트(배럴당 117.72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14단계로 적용
- 국내선 유류할증료(부가세 포함)는 올해들어 매월 상승세를 보이며 11월 15,400원 부과
 - 국내선 유류할증료: 0원('20.5~'21.1) → 1,100원('21.2~3) → 2,200원('21.4~'21.6) → 3,300원('21.7) → 4,400원('21.8) → 5,500원('21.9) → 3,300원('21.10) → 5,500원('21.11) → 8,800원('21.12) → 6,600원('22.1) → 5,500원('22.2) → 8,800원('22.3) → 9,900원('22.4) → 14,300원('22.5) → 17,600원('22.6) → 19,800원('22.7) → 22,000원('22.8) → 18,700원('22.9) → 15,400원('22.10~11)



2. 항공산업관련 주요 동향

2.1 보잉, 조종사 및 기술자 전망(2022-2041) 발표³⁾

- 보잉이 최근 발표한 조종사 및 기술자 전망(Pilot and Technician Outlook)에 따르면 2041년까지 전 세계 항공기는 47,000대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전망
 - 이를 위해 신규 조종사 60만 명, 신규 기술자 61 만 명, 신규 객실승무원 약 90만 명이 필요
- 크리스 브룸(Chris Broom) 상업용 교육 솔루션 부사장은 “항공산업이 팬데믹에서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계획함에 따라 항공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항공 여행에 대한 승객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중지·취소되었던 훈련 프로그램 재개가 필요하나 인력 수급 부족분을 메꾸기엔 몇 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보잉은 전 세계적으로 조종사 부족의 원인을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꼽음
 -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베테랑 조종사들의 자발적 퇴직과 현재 조종사의 정년이 임박했으며
 - 두 번째는 자격을 갖춘 조종사들의 비즈니스 항공 및 일반항공 분야로의 전향 가능성임
- 글로벌 MRO 측면에서 향후 20년간 약 61만명의 신규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몇 년 내 유지보수 기술자에 대한 점진적 수요가 있을 전망

2.2 2022년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전망⁴⁾

-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는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몇 안되는 저탄소 기술 중 하나이며, 가까운 시일 내 실행가능성이 높은 기술임
- 2022년 SAF 시장은 각국 정부와 항공사들은 SAF 활용에 관심을 가지며 성장 속도가 빨라짐
 - 공급 부족, 재색 가능한 디젤 자원 경쟁 및 기술 다양성 부족 등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료 보급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항공산업의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
- 전 세계 38개의 주요 항공사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net-zero) 를 약속
 - 약 30개의 항공사는 2030년까지 연료 소비량의 10%를 SAF로 채택할 예정

3) aerotime, Boeing: Global aviation will need 602,000 pilots by 2041
 (<https://www.aerotime.aero/articles/31728-boeing-pilot-and-technician-outlook-update>)

4) BloombergNEF, 2022 Sustainable Aviation Fuel Outlook
 (<https://about.bnef.com/blog/2022-sustainable-aviation-fuel-outlook/>)

- 캐나다, 중국 및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자국의 SAF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 목표를 설정
- 블룸버그NEF는 2030년까지 SAF 수요는 전 세계 제트 연료 수요의 5%인 70억 갤런에 달할 것으로 전망
 - SAF에 대한 항공업계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생산업체도 제한적임
- 향후 5년간 계획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현실화 된다면 SAF 용량은 2026년까지 25억 갤런을 초과할 전망
 - 또한, 생산업체들이 재생가능한 디젤 대신 SAF 생산량을 극대화 한다면 30억 갤런에 달할 것
 - 모든 계획된 재생가능한 디젤 프로젝트가 SAF 생산을 최대화하도록 조정된다면 연간 공급량은 76억 갤런에 도달할 전망



3. 항공기 제작 및 정비 동향

3.1 글로벌 항공기 제작 동향

가. 항공기 운용

- CAPA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운용중인 항공기 32,588대 중 보잉사 제작 항공기가 11,780대로 전체의 36.1%, 에어버스 제작 항공기가 10,406대로 31.9% 비율을 나타냄⁵⁾

〈표 Ⅲ-6〉 제작사별 항공기 운용 현황

(2022.10.5일 기준, 단위: 대, %)

제작사	대수	비율	제작사	대수	비율
Airbus	10,406	31.9	Harbin Aircraft Industries Group	40	0.1
Antonov	319	1.0	Hawker Siddeley Aviation	11	0.0
ATR	979	3.0	Ilyushin	111	0.3
Beech Aircraft Corporation	637	2.0	IPTN Indonesia	4	0.0
Boeing	11,780	36.1	Let	151	0.5
Boeing/McDonnell Douglas	284	0.9	Lockheed Company	34	0.1
Bombardier	1,179	3.6	Mitsubishi	5	0.0
British Aerospace	254	0.8	Pilatus Aircraft Ltd	62	0.2
Britten-Norman	155	0.5	Piper	3	0.0
CASA	42	0.1	PZ LMielec	16	0.0
Cessna Aircraft Company	1,094	3.4	Reims-Cessna	9	0.0
Comac	87	0.3	Saab	224	0.7
Convair	4	0.0	Short Brothers	88	0.3
Curtiss-Wright	5	0.0	Sukhoi	151	0.5
De Havilland of Canada	1,376	4.2	Swearingen Corporation	240	0.7
Dornier	203	0.6	Tecnam	29	0.1
Embraer	2,297	7.0	Tupolev	28	0.1
Fokker	199	0.6	Xian Aircraft Industry Company	39	0.1
GAF	6	0.0	Yakovlev	30	0.1
Grumman Aircraft Corporation	7	0.0			
합계			32,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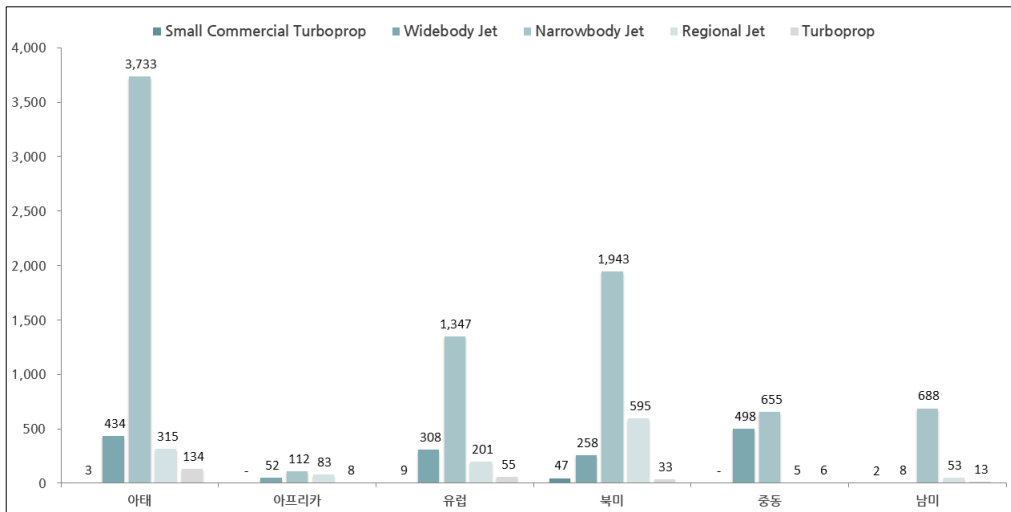
주: In service 기준, 일부 제작사 자료 미포함

5) CAPA(2022.10.5.) 공급석 기준

나. 항공기 제작

● 항공기 유형별 지역별 주문 현황(2022.10.5일 현재 기준)

- 소형 상업용 터보프롭기6): 아·태 3대, 유럽 9대, 북미 47대
- 광폭동체 제트기7): 아·태 434대, 아프리카 52대, 유럽 308대, 북미 258대, 중동 498대, 남미 8대
- 협폭동체 제트기8): 아·태 3,733대, 아프리카 112대, 유럽 1,347대, 북미 1,943대, 중동 655대, 남미 688대
- 지역용 제트기9): 아·태 315대, 아프리카 83대, 유럽 201대, 북미 595대, 중동 5대, 남미 53대
- 터보프롭기: 아·태 134대, 아프리카 8대, 유럽 55대, 북미 33대, 중동 6대, 남미 13대



자료: CAPA

[그림 Ⅲ-2] 전 세계 항공기 지역별 주문 현황

- 6) 터보프롭기: 프로펠러 구동으로 동력을 얻는 가스터빈엔진 항공기(ATR 42, ATR 72, Q400 등)
- 7) 광폭동체 제트기: 기체 폭 지름이 5~6m로 통로가 2줄인 항공기(B747, B767, A330, A380 등)
- 8) 협폭동체 제트기: 기체 폭 지름이 3~4m로 통로가 1줄인 항공기(B737, B757, A320 등)
- 9) 지역용 제트기: 중거리용 터보팬제트엔진 항공기(ERJ 145, CRJ 700, Fokker 100 등)



4. 우리나라 항공레저 동향

4.1 항공레저스포츠 현황

- '17.3.30일 항공레저스포츠·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및 준용규정 등을 포함한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활동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법」을 시행함
- 항공사업법의 항공레저 관련 주요 내용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마련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마련
 - 항공보험 등의 가입 의무 마련
- 항공안전법의 항공레저 관련 주요 내용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항공안전 확보 마련
- '22.9.30일까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총 41,898대가 등록 또는 신고됨¹⁰⁾
 - 경량항공기(220대, '22.9.30일 기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d parachute) 등을 의미함(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

〈표 Ⅲ-7〉 경량항공기 등록 현황

('22.9.30일 기준, 단위: 대)

구 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슈트	합계
	타면조종형 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 헬리콥터	자이로 플레인		
대수	197	4	7	6	6	220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초경량비행장치(41,678대, '22.9.30일 기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의미함(항공안전법 제2조제3항)

10)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표 III-8〉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현황

(‘22.9.30일 기준, 단위: 대)

구 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낙하산	합계
	조종형 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자이로 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무인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		
대수	9	3	0	1	428	1,313	0	62	39,862	53	31	41,678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 2022.9월 말 기준 경량항공기는 1,568명, 초경량비행장치는 96,610명이 자격 취득

〈표 III-9〉 경량 및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취득 현황

(‘22.9.30기준, 단위: 명)

기간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조종사
2004	370	-
2005	249	-
2006	130	-
2007	184	-
2008	250	-
2009	380	267
2010	122	210
2011	38	141
2012	39	94
2013	90	148
2014	1,241	105
2015	936	65
2016	999	81
2017	3,374	72
2018	11,444	60
2019	14,851	71
2020	13,703	77
2021	28,241	106
2022.9	19,969	71
합계	96,610	1,568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초경량비행장치), 항공자격처(경량항공기 조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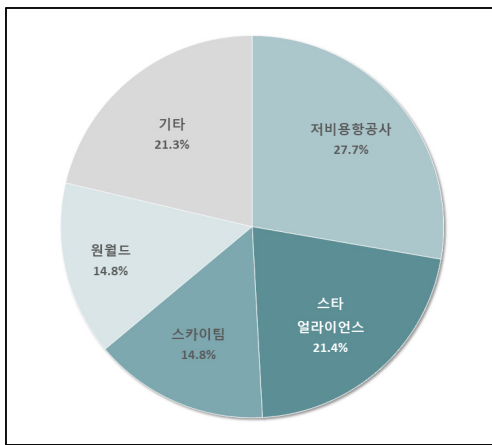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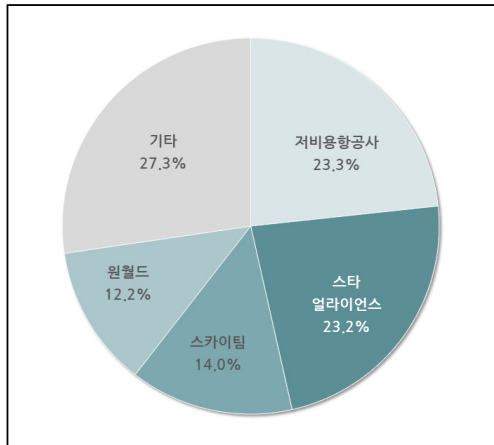
5.1 항공사 제휴 현황

- 항공사 제휴별 ASK 기준 운송력 점유율은 Star Alliance 21.4%, SkyTeam 14.8%, Oneworld 14.8%, 저비용항공사 27.7%, 기타 항공사 21.3%
- 항공사 제휴별 기단현황은 Star Alliance 3,813대, SkyTeam 2,897대, Oneworld 2,255대, 저비용항공사 6,043대, 기타 항공사 17,68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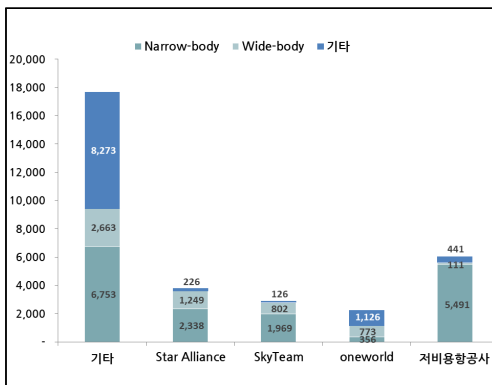
(2022.10.17.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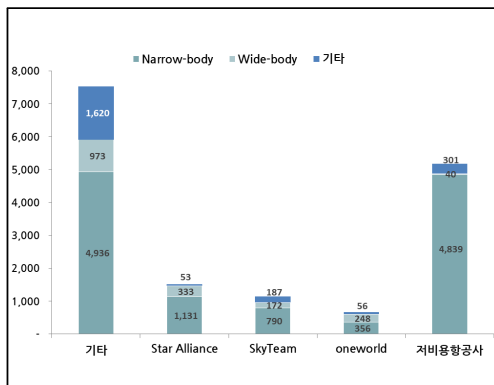
전 세계 제휴별 ASK 점유율



아·태지역 제휴별 ASK 점유율



기단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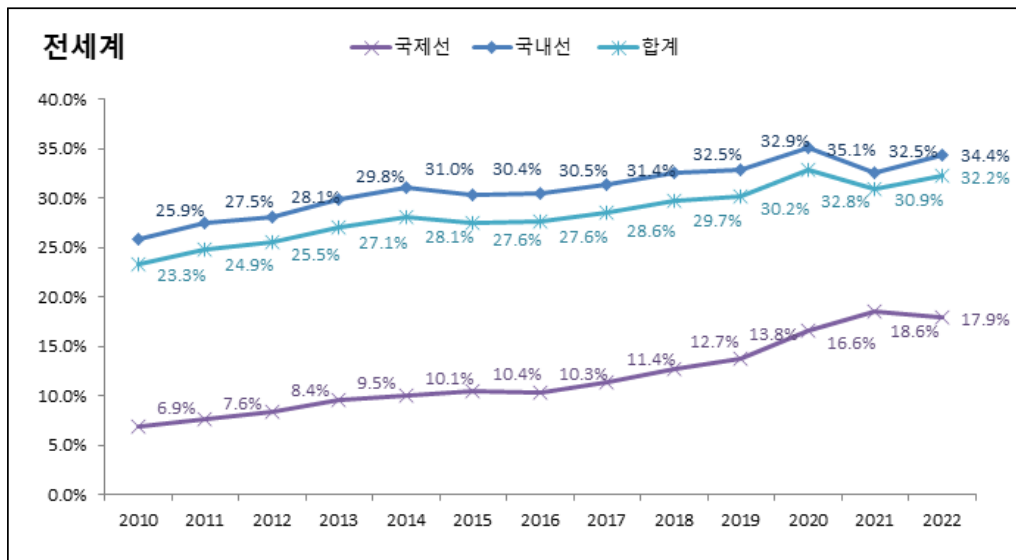
기단주문

[그림 Ⅲ-3] 항공사 제휴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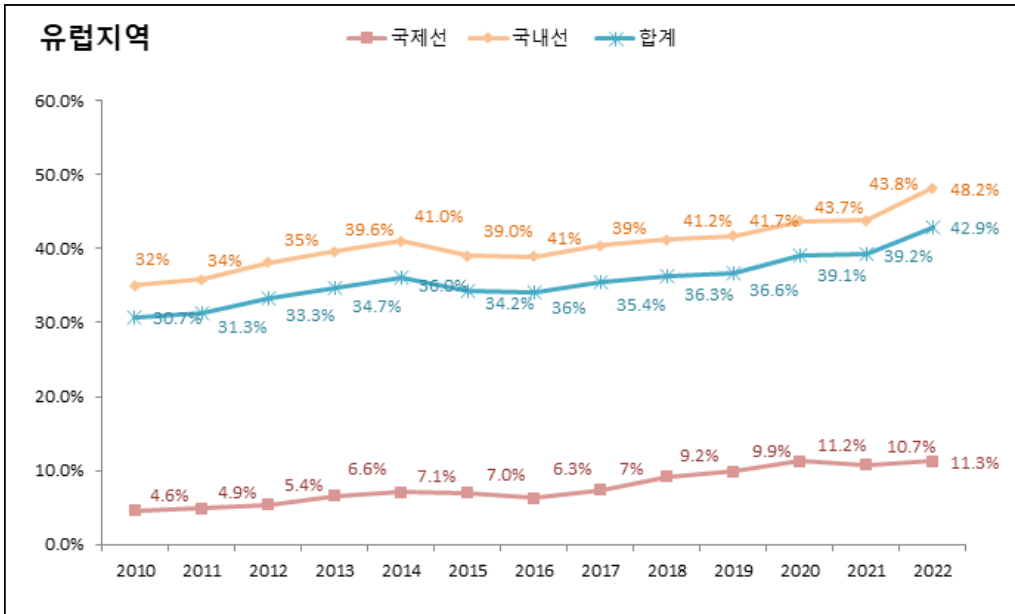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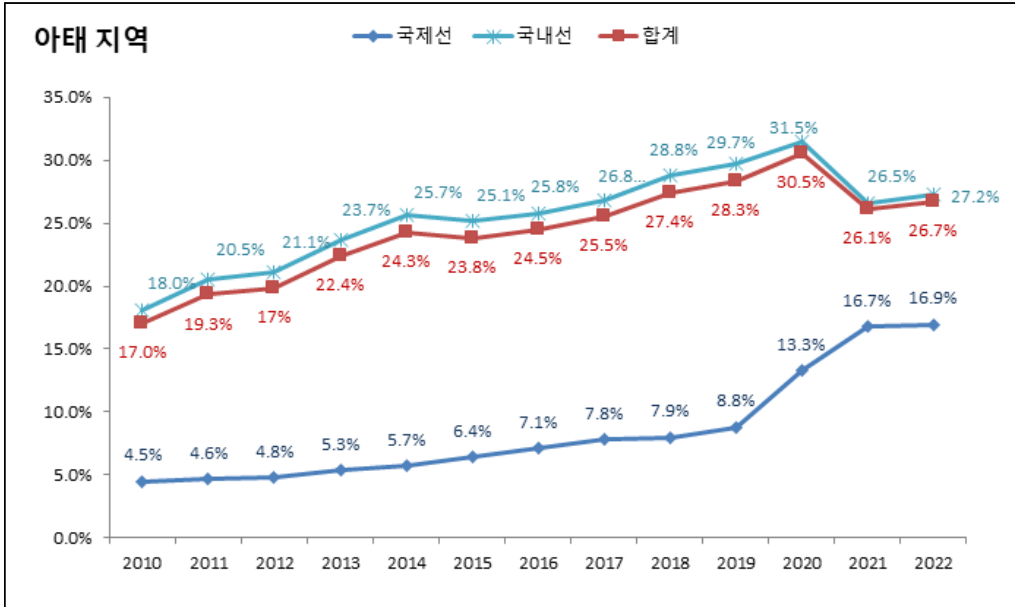
5.2 저비용항공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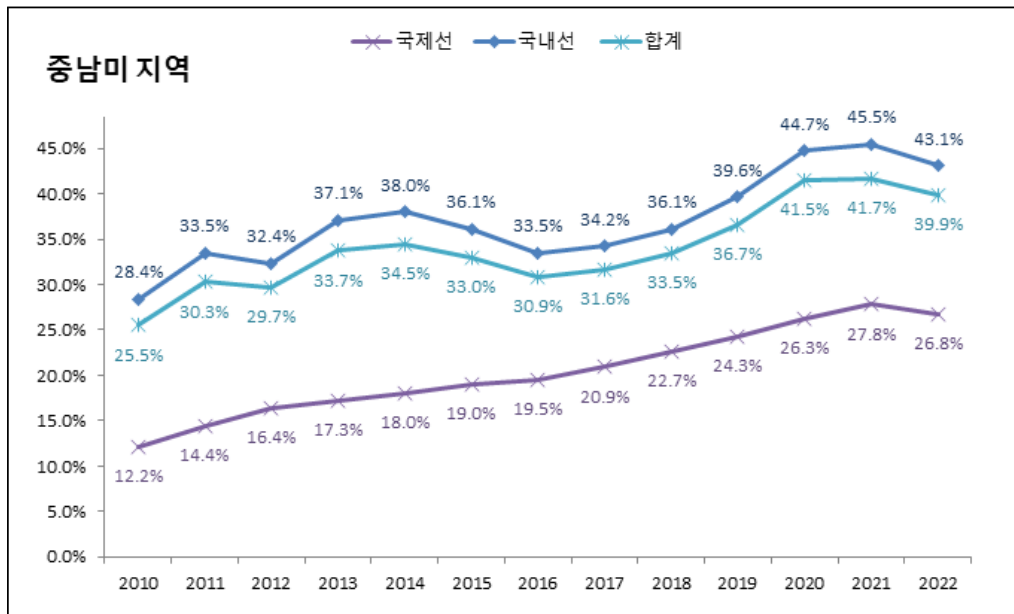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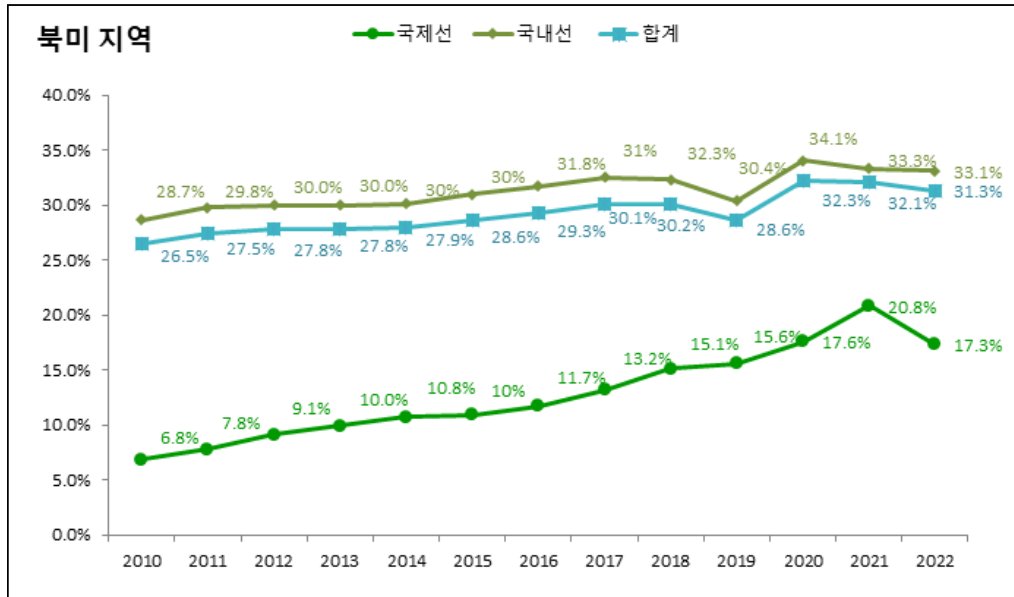
가. 주요 저비용항공사 수송 현황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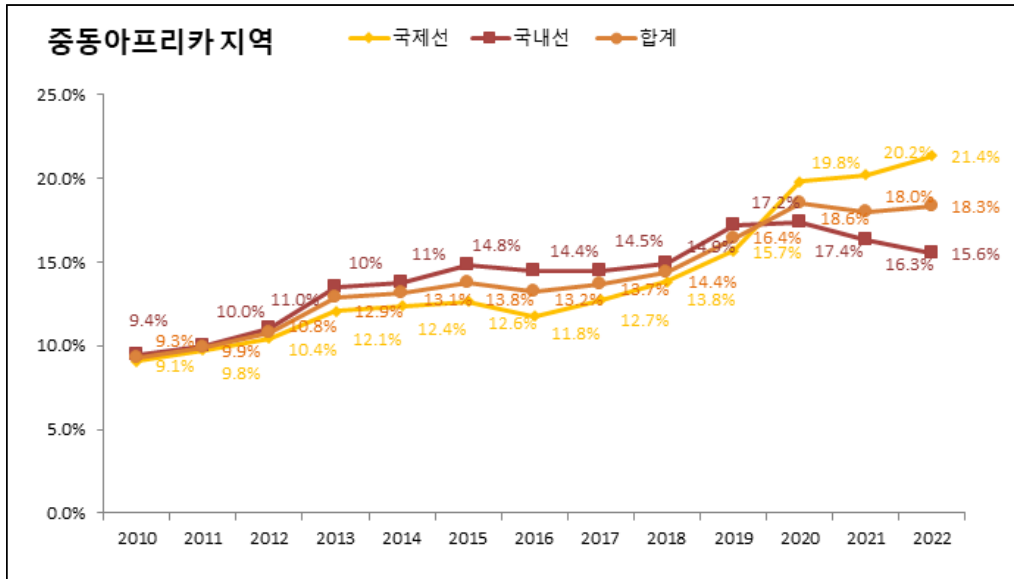
- 2022년 10월까지 전 세계 저비용항공사 공급좌석 점유율은 국제선 17.9%, 국내선 34.4%, 전체 32.2%를 나타냄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점유율 : 국제선 16.9%, 국내선 27.2%, 전체 26.7%
 - 유럽 지역 점유율 : 국제선 11.3%, 국내선 48.2%, 전체 42.9%
 - 북미 지역 점유율 : 국제선 17.3%, 국내선 33.1%, 전체 31.3%
 - 중남미 지역 점유율 : 국제선 26.8%, 국내선 43.1%, 전체 39.9%
 - 중동·아프리카 지역 점유율 : 국제선 21.4%, 국내선 15.6%, 전체 18.3%



11) 2017.4월, CAPA가 2007-2016년의 점유율을 전면 수정함에 따라 과월호의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Ⅲ-4] 저비용항공사의 지역별 공급좌석 점유율(2010~2022.10)

나. 주요 저비용항공사

1) 아시아·태평양지역

No	국가	항공사명	코드	사용공항
1	대한민국	Aero K	RF	CJJ
2	대한민국	Air Busan	BX	PUS
3	대한민국	Air Seoul	RS	ICN
4	대한민국	Eastar Jet	ZE	GMP
5	대한민국	Fly Gangwon	4V	YNY
6	대한민국	JEJU air	7C	CJU
7	대한민국	Jin Air	LJ	ICN
8	대한민국	T'way Air	TW	GMP
9	일본	Jetstar Japan	GK	NRT
10	일본	Peach	MM	KIX
11	일본	Spring Japan	IJ	NRT
12	일본	ZIPAIR	ZG	NRT
13	중국	9 Air	AQ	CAN
14	중국	Air Guilin	GT	KWL

No	국가	항공사명	코드	사용공항
15	중국	Beijing Capital Airlines	JD	PKX
16	중국	Chengdu Airlines	EU	CTU
17	중국	China United Airlines	KN	PKX
18	중국	Colorful Guizhou Airlines (Duocai Guizhou Airlines)	GY	KWE
19	중국	Jiangxi Air	RY	KHN
20	중국	Lucky Air	8L	KMG
21	중국	Spring Airlines	9C	SHA
22	중국	Urumqi Air	UQ	URC
23	중국	West Air	PN	CKG
24	대만	Tigerair Taiwan	IT	TPE
25	말레이시아	AirAsia	AK	KUL
26	말레이시아	AirAsia X	D7	KUL
27	베트남	Pacific Airlines	BL	SGN
28	베트남	VietJet Air	VJ	HAN
29	스리랑카	FITS Aviation (FitsAir)	8D	CMB
30	싱가포르	Jetstar Asia	3K	SIN
31	싱가포르	Scoot	TR	SIN
32	인도	Air Deccan		BLR
33	인도	Air India Express	IX	CCJ
34	인도	AirAsia India	I5	BLR
35	인도	Akasa Air	QP	BOM
36	인도	Go First	G8	DEL
37	인도	IndiGo	6E	DEL
38	인도	SpiceJet	SG	DEL
39	인도	TruJet	2T	HYD
40	인도네시아	Citilink	QG	SUB
41	인도네시아	Indonesia AirAsia	QZ	CGK
42	인도네시아	Lion Air	JT	CGK
43	인도네시아	Super Air Jet	IU	CGK
44	인도네시아	TransNusa Air Services	8B	KOE
45	인도네시아	Wings Air	IW	SUB
46	카자흐스탄	FlyArystan		ALA



No	국가	항공사명	코드	사용공항
47	캄보디아	Lanmei Airlines	LQ	PNH
48	키르기스스탄	Air Manas	ZM	FRU
49	태국	Nok Air	DD	DMK
50	태국	Thai AirAsia	FD	DMK
51	태국	Thai AirAsia X	XJ	DMK
52	태국	Thai Lion Air	SL	DMK
53	태국	Thai VietJet Air	VZ	BKK
54	파키스탄	airblue	PA	KHI
55	필리핀	Cebgo	DG	MNL
56	필리핀	Cebu Pacific	5J	MNL
57	필리핀	Philippines AirAsia	Z2	MNL
58	호주	Jetstar Airways	JQ	MEL
59	홍콩	Greater Bay Airlines	HB	HKG
60	홍콩	HK Express	UO	HKG

2) 유럽지역

No	국가	항공사명	코드	사용공항
1	네덜란드	Transavia	HV	AMS
2	노르웨이	Flyr	FS	OSL
3	노르웨이	Norse Atlantic Airways	N0	OSL
4	노르웨이	Norwegian Air Shuttle AOC	DY	OSL
5	노르웨이	Norwegian Air Shuttle ASA	DY	OSL
6	독일	Eurowings	EW	DUS
7	독일	Eurowings Discover	4Y	FRA
8	라트비아	airBaltic	BT	RIX
9	러시아	Pobeda	DP	VKO
10	러시아	Smartavia	5N	DME
11	루마니아	Blue Air	0B	OTP
12	루마니아	HiSky (Romania)	H4	IAS
13	몰도바	HiSky (Moldova)	H7	KIV
14	몰타	Lauda Europe	LW	MLA

No	국가	항공사명	코드	사용공항
15	몰타	Malta Air	AL	MLA
16	몰타	Wizz Air Malta		MLA
17	스웨덴	Norwegian Air Sweden AOC	D8	ARN
18	스위스	easyJet Switzerland	DS	GVA
19	스페인	Iberia Express	I2	MAD
20	스페인	LEVEL		BCN
21	스페인	Volotea	V7	NAP
22	스페인	Vueling	VY	BCN
23	아르메니아	Fly Arna	G6	EVN
24	아이슬란드	PLAY	OG	KEF
25	아일랜드	Ryanair	FR	STN
26	아제르바이잔	Buta Airways		GYD
27	영국	easyJet	U2	LGW
28	영국	Flybe	BE	BHX
29	영국	Jet2.com	LS	LBA
30	영국	Ryanair UK	RK	STN
31	영국	Wizz Air UK	W9	LTN
32	오스트리아	easyJet Europe	EC	VIE
33	오스트리아	Eurowings Europe	E2	VIE
34	우크라이나	SkyUp	PQ	KBP
35	이탈리아	blu-express		FCO
36	터키	AnadoluJet		ESB
37	터키	Onur Air	8Q	ISL
38	터키	Pegasus Airlines	PC	SAW
39	프랑스	French Bee	BF	ORY
40	프랑스	LEVEL France	LV	ORY
41	프랑스	Transavia France	TO	ORY
42	헝가리	Wizz Air	W6	BUD



3) 북미지역

No	국가	항공사명	코드	사용공항
1	미국	Allegiant Air	G4	LAS
2	미국	Avelo Airlines	XP	BUR
3	미국	Breeze Airways	MX	SLC
4	미국	Frontier Airlines	F9	DEN
5	미국	JetBlue Airways	B6	JFK
6	미국	Southwest Airlines	WN	DAL
7	미국	Spirit Airlines	NK	FLL
8	미국	Sun Country Airlines	SY	MSP
9	캐나다	Air Canada Rouge	RV	YYZ
10	캐나다	Canada Jetlines		YYZ
11	캐나다	Flair Airlines	F8	YEG
12	캐나다	Lynx Air	Y9	YYC
13	캐나다	Sunwing Airlines	WG	YYZ
14	캐나다	Swoop	WO	YYC
15	캐나다	WestJet	WS	YYC

4) 남미지역

No	국가	항공사명	코드	사용공항
1	도미니카공화국	Arajet	DW	SDQ
2	멕시코	Viva Aerobus	VB	MTY
3	멕시코	Volaris	Y4	MEX
4	브라질	Azul	AD	VCP
5	브라질	GOL	G3	CGH
6	아르헨티나	Andes Lineas Aereas	OY	SLA
7	아르헨티나	Flybondi	FO	COR
8	아르헨티나	JetSMART (Argentina)	WJ	EPA
9	엘사바도르	Volaris El Salvador	N3	SAL
10	온두라스	EasySky		SAP
11	칠레	JetSMART (Chile)	JA	SCL
12	칠레	SKY Airline (Chile)	H2	SCL
13	코스타리카	Volaris Costa Rica	Q6	SJO
14	콜롬비아	Ultra Air	OL	MDE
15	콜롬비아	Viva	VH	MDE
16	콜롬비아	Wingo	P5	BOG
17	페루	JetSMART (Peru)	JZ	LIM
18	페루	SKY Peru	H8	LIM
19	페루	Viva Perú	VV	LIM



5) 중동·아프리카 지역

No	국가	항공사명	코드	사용공항
1	UAE	Air Arabia	G9	SHJ
2	UAE	Air Arabia Abu Dhabi	3L	AUH
3	UAE	flydubai	FZ	DXB
4	UAE	Wizz Air Abu Dhabi	5W	AUH
5	사우디아라비아	flyadeal	F3	JED
6	사우디아라비아	flynas	XY	RUH
7	오만	SalamAir	OV	MCT
8	요르단	Jordan Aviation	R5	AMM
9	쿠웨이트	Jazeera Airways	J9	KWI
10	남아프리카	FlySafair	FA	JNB
11	남아프리카	Mango	JE	CPT
12	모로코	Air Arabia Maroc	3O	CMN
13	이집트	Air Arabia Egypt	E5	HBE
14	이집트	Air Cairo	SM	CAI
15	이집트	FlyEgypt	FT	CAI
16	짐바브웨	fastjet Zimbabwe	FN	HRE
17	케냐	Fly540	5H	NBO
18	케냐	Freedom Airline	4F	WIL
19	케냐	Jambojet	JM	NBO

5.3 주요 국가 항공산업 동향

〈표 III-10〉 주요 국가 항공산업 및 경제지수 현황(수송실적 20위)

(기준: 2022.10.5일)

구분	실적 ¹⁾ (2020) (백만톤킬로)	'22.10월누적 저비용점유율		기단			주당편수		주당화물처리(kg)	
		국내	국제	운항	비운항 ²⁾	주문	국내	국제	국내	국제
미 국	97,187	35.2%	17.9%	8,986	767	2,697	291,413	26,723	338,517,444	271,152,378
중 국 ³⁾	76,403	5.1%	5.6%	3,888	438	1,305	136,560	3,532	217,315,950	146,563,822
UAE	23,054	-	31.8%	487	67	576	-	10,336	-	111,275,072
카타르	18,876	0.0%	5.9%	215	33	124	-	3,897	-	67,105,542
한국	16,536	44.6%	24.0%	333	58	184	6,382	3,438	12,413,544	83,430,216
러시아	16,324	14.7%	8.8%	1,041	170	299	25,154	4,652	25,263,836	17,342,216
일본	14,765	22.5%	14.0%	646	16	175	32,782	3,536	57,055,733	78,591,991
터키	14,421	33.3%	29.3%	609	18	168	9,790	13,808	17,448,264	74,096,670
독일	10,908	22.2%	32.6%	646	61	210	4,690	24,618	3,471,720	88,464,609
영국	10,856	49.1%	53.0%	817	52	322	7,462	28,629	1,532,859	71,735,513
네덜란드	9,524	0.0%	30.8%	243	6	12	42	9,778	215,382	49,372,774
프랑스	9,523	41.7%	40.9%	455	33	90	7,688	16,156	3,923,671	50,436,813
캐나다	8,669	11.0%	2.5%	1,250	149	179	25,409	8,200	23,925,978	35,328,027
인도	8,548	86.0%	42.6%	656	123	998	38,762	6,615	29,604,866	56,510,826
룩셈부르크	7,446	0.0%	26.1%	62	1	-	-	1,250	-	25,395,325
아일랜드	6,999	74.0%	52.3%	415	11	141	112	4,828	-	8,442,653
브라질	6,123	63.8%	13.3%	564	34	206	29,435	1,793	30,367,297	18,613,288
싱가포르	5,942	0.0%	32.2%	198	27	106	-	4,499	-	51,041,442
멕시코	5,826	71.0%	31.1%	484	67	167	17,904	6,257	15,039,831	26,381,497
사우디 아라비아	5,768	42.9%	23.5%	292	7	136	6,730	5,529	11,521,590	33,894,672

주: 1) 실적(2020) - 2022.1월 ICAO 발표(2020년 말 기준자료)

2) 비운항 - Inactive

3) 중국 - 홍콩, 마카오 제외

자료: CAPA, OAG, IMF